

TV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EBS table with 3 columns: EBS, EBS, EBS. Rows 05:00-09:35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EBS channels.

EBS플러스1 and EBS플러스2 tables with 3 columns: EBS, EBS, EBS. Rows 00:00-11:40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EBS Plus 1 and 2 channels.

Table with 2 column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and 12월 24일 (11월 3일 리본). Rows 36년생 to 41년생 providing horoscopes for different zodiac signs.

“유독 힘들었던 올해 해 최고의 힐링은 노래죠”



태진아, 새 음반 ‘사랑타령’ 발표

“욕경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 ‘동반자’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미안 미안해’ ‘거울도 안보는 여자’ ‘노란손수건’ ‘사모곡’...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한·61)의 빅 히트곡을 세련된 열 손가락으로 모조리한다. 올해로 데뷔 44주년을 맞은 태진아는 명실공히 국내 트로트의 ‘최고봉’이다.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면서도 어렵지 않아 쉽게 따라부를 수 있는 노래가 ‘태진아표 트로트’의 강점이다. 타고난 가창력을 지닌 가수지만 가요계에선 노력파로 더 인정받는다. 거의 매년 빠짐없이 새 앨범을 내놓는 열성이 이런 노력을 보여주는 한 예다. 환갑이 넘은 나이임에도 그는 여전히 쉬지 않고 음악 활동을 하며 꾸준한 신곡을 발표하고 있다. 태진아는 올해도 2개의 음반을 발매했다. 2월 발표한 ‘자기야 좋아’와 지난 10일 공개한 ‘2015 태진아 사랑타령’이다. 그는 ‘사랑타령’을 내년에 발매하려다가 일정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사전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올해 팬들을 위로하고픈 마음을 담은 곡을 만들어서다. 그는 “국민 모두에게 힘든 해였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든 모두 그렇더라. 하지만 사랑으로 모든 걸 용서하고, 희망을 갖고, 용기를 냈으면 한다. 그런 마음으로 만든 곡이다. 내년엔 내리다가 팬들을 모두 사랑으로 한해를 마무리했으면 해서 발매를 서둘렀다”고 말했다. 태진아의 새 앨범 ‘사랑타령’에 수록된 타이틀곡 또한 ‘사랑타령’이다. 태진아 본인이 직접 작사·작곡한 곡이다. 언뜻 그의 과거 노래들과 비슷한 레퍼토리가 연상되나 그는 ‘사랑’의 의미가 다르다고 부연했다. 과거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에 국한됐다면 이번 노래의 ‘사랑’은 ‘세상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인생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다. 그는 “올해 사건 사고가 참 많았다. 국민 모두 힘들겠지만 이 슬픔을 이겨내자고 말하고 싶었다. 시간이 흐르고 보면 이 슬픔도 사랑이구나, 앞으로 남은 인생도 사랑이구나 하고 깨닫는 날이 오지 않을까. 사랑으로 모든 걸 용서하고, 희망을 갖고, 용기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슬픔 때가 있으면 기쁨 때가 있다. 잘 나갈 때가 있다 보면 못나갈 때도 있다”면서 노래 가사를 인용해 “어차피 가는

세월은 잡을 수가 없고 가는 청춘도 잡을 수가 없다. 세상천지를 다 준다 해도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진아의 가족 사랑 또한 그의 히트곡만큼이나 유명하다. 그는 여러 매체를 통해 자신의 히트곡 중에서도 단연코 ‘욕경이’를 ‘최고의 노래’로 수차례 언급했다. 지난주 만난 그는 “내 인생의 99%가 욕경이, 아니 내 인생의 전부야 욕경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그가 운영하는 음반기획사 ‘진아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는 아내 사진이 대문쪽 맨 위에 걸려 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하며 힘든 순간마다 사랑으로 극복하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어릴 때도 고생 많이 했지만 미국에서도 정말 힘들었다. 게다가 미국서는 말도 안통하지 않느냐. 그래도 아내가 옆에 있어 어려움을 다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2004년 발표한 ‘동반자’도 이런 아내와의 사연을 담은 곡이다. 그는 “항상 더 노력하고, 항상 더 연습하고... 이 두가지만이 답이다. 노력하는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태진아 스스로도 올해 초 가수비와 걸레베레이저 공연을 펼치는 등 세대를 초월해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다양성이 줄어든 것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가요가 젊은 층 위주로 소비되면서 나머지 세대를 위한 노래가 점점 줄어든다는 점에서도. “이번 앨범에 ‘욕경이’부터 ‘사모곡’까지 예전 히트곡을 다 담았다. 히트곡만 따로 내면 수익이 더 나겠지만 어르신들을 위해 음반 한장으로 태진아의 히트곡을 다 들어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는 노래를 더 쉽게 쓰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사랑타령’ 앨범에 담은 예전 곡을 고를 때도 ‘따라부르기 쉬운 노래’를 기준으로 삼았다. 태진아는 “난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가수를 할 거다. 계속 노래하고 싶다. 이렇게 좋은 직업이 또 어디 있겠느냐. 외국에서 교포분들 대상으로 공연할 때 ‘고향의 봄’을 부르면 관객분들이 합창하면서 온다. 가수는 노래로 상대를 위로하는 직업”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올해 드라마 최고 시청률 ‘왕가네 식구들’

예능 부동의 1위 ‘개그콘서트’

올해 전체 시청률 1위 TV 프로그램은 KBS 2TV 주말연속극 ‘왕가네 식구들’로 조사됐다.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는 KBS 2TV ‘개그콘서트’가 1위를 차지했다.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코리아가 23일 발표한 자료 ‘2014년 지상파 프로그램 시청률 결산’에 따르면 ‘왕가네 식구들’ 평균시청률은 42.2%(이하 전국 기준)로 집계됐다. 작년 8월 19.7%의 시청률로 출발한 드라마는 방송 2회 만에 20%를 넘긴 뒤 종영 직전인 올해 2월 방송에서는 자체 최고인 48.3%를 기록했다. ‘왕가네 식구들’을 비롯해 올해에도 시청률 10위 안에는 대부분 KBS 드라마가 포진했다. 현재 인기리에 방송 중인 KBS 2TV 주말 ‘가족끼리 왜 이래’가 시청률 28.6%로 2위, KBS 1TV 일일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가 27.9%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SBS TV ‘별에서 온 그대’(25.4%, 4위), MBC TV 퓨전사극 ‘기황후’(24.7%, 5위), KBS 2TV 주말연속극 ‘참 좋은 시절’(24.5%, 6위) 순이었다. 스포츠 중계방송도 상위권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남북한이 맞붙은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KBS 2TV)은 17.8%의 시청률로 12위가 됐다. 지난 9월 KBS 2TV에서 중계된 국가대표 평가전 한국 대 우루과이전은 1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는 KBS 2TV ‘개그콘서트’가 15.4%의 시청률로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SBS TV ‘정글의 법칙’이 13.1%로 2위, 최근 상승세를 탄 KBS 2TV ‘해피선데이’가 12.7%로 3위, MBC TV ‘무한도전’이 12.3%로 4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MBC TV ‘일밤’과 KBS 2TV ‘불후의 명곡’, SBS TV ‘놀라운 대회 스타킹’, ‘도전 1000곡’, ‘TV 동물농장’, ‘일요일이 좋다’가 예능 10위 안에 들었다.

신해철 유작 담긴 베스트 앨범 출시

‘리부트 유어셀프’ ... 오늘 한정판 발매

지난 10월 세상을 떠난 넥스트 신해철의 유작이 담긴 베스트 앨범이 24일 발매된다.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23일 “솔로와 넥스트로 활동한 신해철의 베스트 앨범 ‘리부트 유어셀프’(Reboot Yourself)를 이날 낮12시 2천500장 한정판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앨범에는 1988년 MBC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곡인 신해철의 데뷔곡 ‘그대에게’를 비롯해 ‘민물 장어의 꿈’, ‘날아라 병아리’, 지난 6월 발매한 마지막 솔로 앨범 타이틀곡 ‘단 하나의 약속’까지 대표곡 50여 곡이 리마스터링을 거쳐 4CD에 담겼다. 또 고인의 사랑으로 빛을 보지 못한 유작 중 넥스트유나이티드(Utd.)와 함께 한 ‘핑크 몬스터’(Pink Monster) 한 곡이 수록된다. 신해철이 작사·작곡한 ‘핑크 몬스터’는 신나는 록 스타일의 음악으로 생겨 고인인 애착을 둔 노래다. 신해철이 노래를 부르고 넥스트유나이티드의 트윈 보컬인 이현성이 목소리를 보

냈다. 이밖에도 앨범에는 신해철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 솔로와 넥스트로 활약한 모습 등 일대기별 미공개 사진과 신해철의 어머니가 직접 쓴 손 편지 등이 더해진다. 앞서 넥스트유나이티드는 지난 21일 SBS ‘가요대전’ 무대에서 신해철의 유작 중 ‘리얼 월드’(Real World)의 일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한편, 넥스트유나이티드는 오는 27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신해철이 마지막까지 준비한 콘서트(부제: 민물 장어의 꿈을 무대에 올린다. 공연에는 넥스트의 역대 멤버들을 비롯해 신성우, 예시타렉스 이수, 김진표, 김원준, 홍경민, K2 김성민, 크래쉬 안홍진, 변재원 등 동료 가수들이 출연해 특별 무대를 선보이고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콘서트 수익금은 유족과 소속사, 넥스트유나이티드 멤버들의 협의로 고인의 두 자녀를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공연 티켓은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연합뉴스